



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“The APO in the News”

Name of publication: Digital Times (11 June 2015, Republic of Korea)

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50612021003517810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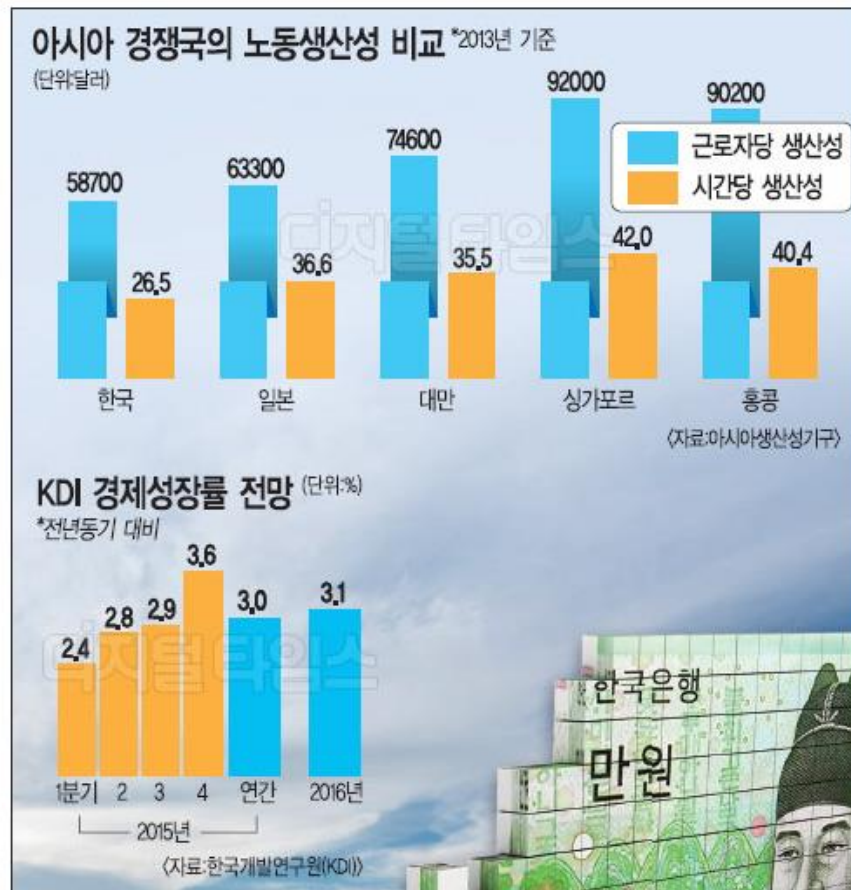
산업

“10년내 30대 그룹 절반이... ” 독하게 군살빼는 기업들

IMF·금융위기 등 겪으며 체질개선 필요성 인식
제조업·첨단분야, 중국·미국 등에 경쟁력 떨어져
관계자 “재계 체질개선에 정부 정책 지원 절실”

박정일 기자 comja77@dt.co.kr | 입력: 2015-06-11 19:08
[2015년 06월 12일자 3면 기사]

[단독] 하늘을 나는 초미니 헬리캠 '미니 드론' 초저가 출시



세계 '제3의 구조조정' 급물살

최근 1~2년간 대한민국 재계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현재 상황에서는 10년 뒤 지금의 30대 그룹 중 절반도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인식이 저변에 깔렸다.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'뒤통수'를 맞은 아픈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.

주요 재계 인사들은 이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.

삼성은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22주년을 기념해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의 정신을 다시 강조했다. 구본무 LG그룹 회장 역시 올 1월 신년사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강조하며 연구개발과 원천기술 확보에 혼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.

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할 때부터 "철을 제외한 모든 **사업부**는 구조조정 대상"이라며 전방위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강조했다. 현재 상황에서는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.

실제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재계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현대·기아**자동차**의 경쟁력은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다.

삼성전자의 경우 주력인 **스마트폰** 시장에서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**성장**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, 현대·기아차는 수입차 공세에 밀려 안방 시장까지 뺏길 위기에 처했다.

이들은 10대 기업의 전체 당기순이익의 20%를 차지할 만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.

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떠안은 숙제다.

지금까지 주요 먹거리였던 제조업 시장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규모의 경제를 당해 낼 재간이 없고, 스마트카 등 미래 첨단 시장에서는 실리콘밸리와 특히 기술 등을 갖춘 미국과 **일본** 등 선진국과 경쟁할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.

실제로 과거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던 조선·철강·정유·화학 등 제조업은 이제 성장보다는 생존을 걱정할 지경이다. 실제로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중국 시장 내 입지는 갈수록 좁고 있다.

여기에 맨저에 힘입은 일본의 부활, 셰일가스 등 **에너지** 시장 재편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조선·철강 등의 경쟁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.

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인 인적 자원의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.

2013년 아시아생산성기구(APO)가 발표한 한국의 시간당 생산성은 26.5달러 수준으로 일본(36.6달러), 싱가포르(42.0달러), 홍콩(40.4달러) 등 경쟁국보다 크게 낮다.

과거 '아시아의 네 마리 용'으로 불렸던 대만 등은 물론 일본보다도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.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이 생산거점을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옮긴다 해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'30대그룹 상장사 인건비·수익성 분석'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대그룹 상장사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1.7%, 12.4% 하락했지만, 급여·퇴직급여·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연평균 3.8% 늘었다.

더 큰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. 현재 세계 주요 업체들은 말 그대로 국경도, 성역도 없는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, 국내 기업의 대응은 아직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.

예를 들어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전기차·스마트카 시장은 벌써 구글과 애플, 테슬라 등 IT 세력과 메르세데스-벤츠, BMW 등 자동차 업체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.

기계로만 여겼던 자동차가 IT로 진화하고 있지만,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.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핀테크 역시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하고 있지만, 강력한 자체 운영체제(OS)를 보유한 구글과 애플의 아성을 넘기 쉽지 않다.

사물인터넷의 부상으로 [반도체](#) 등 빅데이터 시장이 주목받고 있지만,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을 뺀 나머지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.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방관자 신세로 전략할 수 있다.

한 재계 관계자는 "중국 기업이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의 기술력을 넘어서고 구글과 애플 등이 신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면, 우리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다"며 "재계뿐 아니라 정부도 선제적인 정책으로 기업의 변화를 지원해줘야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박정일기자 comia77@dt.co.kr

[저작권자 ©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]